

“어른·아이 함께 볼 드라마 하고 싶었다”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민정 “이병헌, 모니터링해줘”
“막장 요소 거의 없는 청정 스토리 덕분에 사랑받아”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같이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를 하고 싶었어요.” 배우 이민정(38)이 SBS TV ‘운명과 분노’ 이후 1년 반만의 복귀작으로 KBS 2TV 주말극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한다)를 선택한 것은 좋은 화제였다. 그는 압도적으로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작품 종영 후 17일 서면으로 만난 이민정은 “미니시리즈나 멜로드라마는 시청자 층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그대 웃어요’ 같은 훈훈하고 따뜻한 작품을 하고 싶었다”며 “한다”도 막장 요소가 거의 없는 청정 스토리에, 다양한 로맨스와 코믹 요소가 있어 사랑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돌싱’ (돌아온 싱글)이 됐다가 전 남편 윤규진(이상엽 분)과 재회하는 송나희를 연기했다.

“이혼한 상대에게 다시 로맨스 감정을 갖는다는 게 처음엔 쉽게 공감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규진이 힘들 때마다 챙기는 모습에서 나의 자신도 느끼지 못한 규진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서는 가슴 한편에 숨겨왔던 부분을 서서히 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희는 처음에 아니라고 부정했던 것이 한순간에 깨지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 지점을 생각하면서 변화하는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죠.”

과거 유산을 경합하며 마음의 벽을 쌓았던 나희와 규진은 돌고 돌아 다시 쌍둥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2013년 배우 이병헌과 결혼해 2015년 4월 아들을 얻은 이민정은 “자기가 경험해 본 건, 상상으로

하는 연기와는 확실히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희와 규진은 유산 때문에 겪었던 큰 아픔이 나희를 연기하면서 내 안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한 감정이 생겼죠. 대부분은 ‘환하게 웃는다’는 지문이었는데 과연 그냥 환하게 웃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컥한 느낌으로 미소를 짓는 것으로 표현했죠.”

그는 나희와 규진이 재결합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해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제대로 헤어진 게 아니었다. 나희가 미국을 간다고 하니 규진이 비로소 절실함을 느껴 붙잡았다. 결론은 두 사람의 사랑 덕분”이라고 했다.

이민정은 파트너 이상엽과의 호흡에 대해 “알렉스 씨까지 셋이서 호흡이 좋아 너무 웃어서 PD님께 혼나기도 했다”고 웃었다.

또 나희-규진 외에 눈길이 갔던 커플로는 송영달(전호진)-장옥분(차화연) 커플을 꼽으며 “긴 세월을 함께 한 부부로서 두 분의 성품이 많이 보였다.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커플이라 보기 좋았다”고 했다.

이민정은 남편 이병헌이 이번 작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고 묻자 “다테일하게 매의 눈으로 잘 보냈다. 공감도 많이 해줬다”며 “애정 신(scene)은 특별한 게 없어서 아빠(이병헌)는 관찰이었는데 아들이 오히려 아빠가 화내겠다며 ‘큰일 났다’고 아빠 눈치를 보더라”고 또 한 번 웃었다.

이민정은 자신에 대해 “실제로는 사회적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남편 친



이민정

구들과도 잘 지내고, 아이 친구들 엄마들과도 잘 지내는 아내이자 엄마”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희처럼 고집스럽지 않고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등글등글하게 넘어가는 편인 친구”라고 했다.

결혼과 출산 후 2018년에 복귀한 그는 앞으로도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하고 싶

는 뜻을 내비쳤다.

“배우로서의 작품 활동은 물론 엄마로서 아내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열심히 하고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스킬러 장르나 사극에도 도전하고 싶네요.”

/연합뉴스

‘다만 악’·‘테넷’ 개봉 8월 관객 전월보다 57% ↑ 코로나 재확산에 회복세 꺾여...전년 같은 달 35% 수준

지난여름 ‘빅’ 마지막 주자였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하 다만 악)가 흥행을 이끌고, 첫 할리우드 대작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 개봉하면서 8월 관객 수는 한국·외국 영화 모두 전월보다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달의 30%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회복세는 다시 꺾였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8월 영화 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전체 관객 수는 883만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가 개봉한 7월보다 57.2% 늘어난 수치다.

1월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 이후 올해 두 번째로 400만 관객을 돌파한 ‘다만 악’ 덕분이다.

‘다만 악’은 개봉 첫 토요일인 8월 8일 73만명의 관객이 들어 1월 28일 이후 최고 일 관객을 기록했고, 둘째 주말(8월 7~9일) 관객 수도 181만명으로 2월 이후

최고 주말 관객 수를 기록했다.

8월 첫째 주말부터 3주 연속 주말 관객 수가 100만명을 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인 넷째 주에는 48만명으로 급감하면서 8월 전체 관객 수는 지난해 같은 달의 35.6%에 그쳤다.

8월 박스오피스는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2:정상회담’ (127만명), 엄정화 주연의 ‘오케이 마담’ (121만명)이 ‘다만 악’의 뒤를 이었다.

외국 영화 중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 71만명을 동원하며 4위에 올랐다.

한국·외국 영화 모두 전월보다 관객 수가 늘었지만, 감소 폭은 외국영화(78.6%)가 한국 영화(59%)보다 컸다.

독립·예술 영화로는 놀란 감독의 초기작인 ‘메멘토’와 중국 영화 ‘소년 시절의 너’가 1·2위에 올랐고, 한국 영화로는 여성 감독의 데뷔작인 ‘남매의 여름밤’과 ‘69세’ 두 편이 10위 안에 들었다.

/연합뉴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김명민 주연 JTBC 드라마 ‘로스쿨’ 내년 방송

류혜영·김범·이정은 캐스팅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JTBC 신규 드라마 ‘로스쿨’에 배우 김명민과 류혜영, 김범, 이정은이 캐스팅됐다.

17일 ‘로스쿨’ 측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국내 최고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극이다.

예비 법조인들이 살벌한 로스쿨 생존기를 겪고 정의를 깨닫게 된다는 게 주된 줄거리다.

김명민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검사 출신 형법 교수 양중훈을 연기한다.

독설을 내뱉는 화법으로 학생들에게 ‘기피 1호’ 교수로 통하며, 지독한 수업방식을 지녔다.

류혜영은 차상위계층 특별 전형 턱걸이로 로스쿨에 입학한 1학년 강슬 역할을 맡으며, 김범은 1학년 수석 한준위로 분한다.

이정은은 자유분방한 성격의 판사 출신 민법 교수이자 로스쿨 무료 법률자문 기관장 김은숙을 연기한다.

제작진은 “‘로스쿨’은 국내 최초 로스쿨

을 배경으로 한, 법정극과 캠퍼스극의 절묘한 조합을 선보일 드라마”라며 “신선한 소재가 선사하는 재미와 예비 법조인들의 감동적인 성장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은 드라마 ‘눈이 부시게’, ‘송곳’과 영화 ‘조선명탐정’ 시리즈의 김석운 감독이 연출하고 서인 작가가 극본을 집필한다.

JTBC 스튜디오, 스튜디오 피닉스, 공감동하우스가 공동으로 제작한다.

/연합뉴스



김명민·류혜영·김범·이정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예비 신랑 가수 전진, SBS ‘동상이몽2’ 합류

SBS TV 스타 부부 관찰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은 최근 결혼 소식을 전한 가수 전진(사진)이 프로그램에 합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결혼 소식을 전해 큰 관심을 불러 모은 전진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예비 아내를 물론, 첫 만남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김동욱 PD는 “연예계 최고 주말인 전진을 ‘주 1회 음주’로 변화하게 한 예비 아내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24시간 아내에게 빠져있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전진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전진의 이야기는 다음 달 5일 밤 11시 10분 방송에서 만날 수 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파 및 배달 주문 (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명품웃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	하나부동산사무소 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 본위 ☎ 062)233-5155, 010-3615-5155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태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웅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본위 ☎ 062)523-1003, 010-5355-0867	매산철거·삼보소개소 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텐 특수파지, 조직방수, 철근, 콘크리트파쇄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잡·인부일선 ☎ 062)528-7005~6, 010-3625-278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태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꽃·홍삼·생약초즙·봉어즙·장어즙 달발즙·침즙·포도즙 각종고급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대연건설 동구 계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머리해요(미용실) 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1차앞 개업할인 이벤트 컷트8,000원 염색20,000원 펌25,000원 크리닉50,000원 셋팅펌50,000원 매직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새서림 떡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경문 참기름, 고추장,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	광호익스프레스 북구 자산로5(신안동)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전/이사짐보관 ☎ 062)522-1414, 010-3605-1445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일번지식당 나주시 영산포로284(구 영산포역 도로변) 흑염소탕, 뚝배기오리탕,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뚝배기불고기, 불고기비빔밥,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 ☎ 061)335-1110, 010-8543-9617	the 사라헤어 북구 북문대로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펌,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닉 ☎ 062)522-2380, 010-8200-9182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